



전북농협·농기주부모임, 포도 농가 찾아 일손돕기

전북농협이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섰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 4일 고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 농기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소재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고흥주부모임전북도지회와 농기주부모임전북연합회 임원, 전북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포도 수확 등 영농 작업을 함께하며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기 수확과 원활한 출하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농촌 현장에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농협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고흥사랑기부 활성화 위해 공감만세와 협약

남원시는 4일, 고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 플랫폼 '위 기브 (WEGIVE)'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주)공감만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공공플랫폼 중심의 기부 환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플랫폼의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지원과 기부자 편의성 증진으로 고흥사랑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 기부금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확보된 고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전 등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남원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과 우수 상품의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과 함께 남원시는 협약식 이후 답례품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답례품 운영전략, 우수사례 공유 등 답례품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기부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재가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 회의 개최

임실군 관촌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추진위원회(위원장 심우진)는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어울림 문화교실, 관촌 꿈나무 교실, 우리 마을 신나는 문화 놀이터 프로그램, 마을로 가는 청춘 꾸러미, 찾아가는 마을학교(원예교실), 행복매니저 배움학교(문화해설사 양성), 사회적 경제 행복 학교(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사업에 대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적십자사, ‘치매안심이웃+’로 따뜻한 동행

적십자 봉사원이 ‘치매안심이웃’으로… 치매환자·주민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치매가족들을 위한 든든한 이웃이 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4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봉사회와 함께 평화동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및 치매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 주도형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치매안심이웃+’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치매안심이웃+’는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치매안심이웃이 돼 치매안심마을 내 치매 환자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치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치매안심이웃+’ 민·관 협력의 첫 행보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평화동 치매안심마을 주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십자 봉사단원들은 직접 조리한 삼계탕을 노인들에게 배식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 대해서는 개별 포장해 방문 전달하며 인부를 살피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는 전주시치매안심센터의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다채로운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보건소는 이번 평화동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에



팔복동 치매안심마을로 ‘치매안심이웃+’ 사업을 확대하는 등 치매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지역 복지 거점인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적십자사 봉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삼계탕 나눔 봉사는 기간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치매안심마을에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점”이라며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 위한 ‘호남 소담소당 캠프’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소아청소년 당뇨 환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2026년 제18회 호남 소담소당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4일 군산 GSOC 컨벤션센터에서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와 의료진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 소담소당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캠프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아들이 올바른 질환 관리 방법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매일 혈당 측정과 인슐린 투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아들이 의료진이 상주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당뇨병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당당 ON! 건강 ON! 자신감 ON! 삶 ON!’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과 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35명의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연속혈당측정기 부착 및 혈당 관리



교육, 의료·영양·구강보건·사회복지 분야별 맞춤형 교육, 명랑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도전 골든벨, 촛불 의식 등이 진행됐다.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참가자 간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질환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또래 환아들이 서로 공감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비누 만들기 체험, 명랑운동회, 도전 골든벨 등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오상근 기자

익산삼기우체국,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막아

우체국 직원들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 대응으로 고령 고객의 소중한 재산 5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지켜졌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구본준)은 익산삼기우체국 직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80대 여성 최모 씨의 금융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월 29일 발생했다. 최 씨는 익산삼기우체국을 방문해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고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담당 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현금 지급만을 요구하자, 직원들은 금융사기 가능성을 의심했다.

최 씨는 인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휴대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은 최 씨의 전화를 대신 받아 확인했고, 상대방이 즉시 전화를 끊은 뒤 다시 연결되지 않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확인한 결과, 해당 전화는 형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밝혀졌다.

익산경찰서는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해 익산삼기우체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 소상공인연합회,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강상남)는 지난 8월 2일, 남원 NH시네마에서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6회 문화의 날-소상공인 영화의 날’ 행사를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경찰서, 성과관리전략회의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임정빈)는 4일 경찰서 2층 동백마루에서 각 과장 및 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차 성과관리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치안성과 향상을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능별 주요 성과지표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미흡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관계형 범죄 재범 방지와 국민 생명 중심의 교통안전 및 생명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피싱·신종스캠 및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선제적 예방·근절 활동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치안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